

## 4천 명 수련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행진, 중국인들 지지

[밍후이왕] 2016년 10월 22일 미국 서부 파룬따파 수련심득 교류회 전야, 약 4천명 파룬궁수련생들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융가, 도심과 차이나타운에서 연공하고 대행진을 거행했다.

대행진은 5개 팀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팀은 천국악단, 두 번째 팀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세 번째 팀은 파룬궁 박해 중지, 네 번째 팀은 2억 5천만 중화 아들딸의 중국공산당 탈퇴 성원이다. 3시간 동안의 대행진은 샌프란시스코 주류 인사와 중국인들에게 대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고 17년 동안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폭로해 시민들의 정의로운 지지를 받았다.

**광둥 관광객은 중공의 박해를 규탄하다**  
광둥에서 온 허(何) 씨는 샌프란시스코에 온지 3개월이 된다. 그는 말했다. “직접 많이 알아보고 열심히 봐야 무엇이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파룬궁이 박해 받은 사실을 아주 똑똑하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 생체 장기적출은 정말 인성이라고 전혀 없습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중지해야 합니다. 자기의 동포를 행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런 형식(대행진)이 너무 좋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알고 (박해) 진상을 알면 파룬궁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겁니다.”

**중국 이민자 “빨리 장쩌민을 체포하라”**  
중국에서 온 왕 씨는 웅장한 대행진을



보고 격동해 말했다. “오늘 대행진 팀은 너무 훌륭하고 감동적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에 대한 잔인한 정도를 알리고 열린 장쩌민을 체포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장쩌민의 말로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은 모두 파룬궁에 달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홍콩 이민자 “대행진은 해마다 더 장관”**

홍콩에서 온 황 씨는 차이나타운에서 보석 가게를 차렸다. 그는 열심히 대행진을 보고 말했다. “해마다 파룬궁 대행진을 보는데 매번 더 장관입니다. 많은 중국인은 중국공산당의 거짓말을 믿고 파룬궁을 증오�하지만 많

은 홍콩 사람은 그렇게 증오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사실과 진상이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중국인 “오늘 이 대행진을 보게 된 것은 매우 큰 행운”**

싱가포르에서 온 중국인 장 씨는 샌프란시스코에 출장을 왔다. 그는 말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기 때문에 오늘 이 대행진을 볼 수 있어 매우 행운입니다. 아주 장관입니다. 처음 이렇게 웅장한 대행진을 보고 예전에 몰랐던 많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진을 찍고 촬영했습니다. 싱가포르에 갖고 가 친구들에게 알릴 겁니다.”

**9월에 지린성 연변 투먼 파룬궁수련생이 받은 박해정황**

9월 5일 오전, 지린성 연변 투먼 파룬궁수련생 쉬수란(徐淑兰)이 수련생의 집에 갔다가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고발당해 국보대대 경찰에게 납치돼 3대의 휴대 전화를 불법으로 빼앗기고 그 다음 또 집을 불법수색당해 대법 책과 사부님의 법신상을 강탈당했다. 그날 오후 쉬수란은 풀려 집으로 돌아왔다.

9월 중순 투먼 곡수춘 파룬궁수련생 류전리(刘振礼)는 국보대대경찰

에게 불법으로 집을 수색 당하고 사부님의 법신상과 파룬도형, 대법 책을 강탈당했다. 사람은 붙잡아가지 않았다.

9월 20일 오전, 투먼 파룬궁수련생 멍판친(孟凡琴), 저우구이란(周桂兰), 왕위슈(王玉秀) 셋은 멍판친의 집에서 잠복해 있던 5~6명의 경찰에게 납치돼 국보대대로 붙잡혀 갔다. 저우구이란의 몸에 간직했던 휴대 전화를 빼앗아 내고, 멍판친, 왕위슈는 불법적으로 집을 수색당해 대법 책, 사부님법

신상과 진상 지폐를 강탈당했다. 세 사람은 당일 오후에 풀려 나왔다.

**지린성 훈춘시 파룬궁수련생 왕젠 납치되다**

68세인 훈춘시 파룬궁수련생 왕젠(王俭)은 2016년 10월 28일 오후, 집에서 훈춘시 국보대대에 납치되고 집을 수색 당하고 모든 대법 책을 강탈당했다. 경찰은 15일 동안 구류한다고 했다. 현재 왕젠은 불법으로 훈춘시 구치소에 감금되었다.

## 지린 두 경찰의 선악 현보

[밍후이왕 2016 년 9 월 28 일] 1999 년 7 월 20 일, 중공 장쩌민집단이 파룬궁에 대해 피비린내 나는 박해를 한 후 수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이 납치되고 중형을 당하고, 심지어 박해로 생명을 잃었다. 일부분 경찰은 양지를 지켜 파룬궁수련생을 선하게 대하여 복을 얻었고 어떤 경찰은 나쁜 일에 동조하여 금전과 정치자본 등 사욕을 위해 인성을 잃고 박해에 참여해 결국 악보를 받았다.

### 1. 선의 보답

하우더(화명)은 동북 한 성의 경찰이다. 사람들은 그를 하우경이라고 부른다. 박해초기 한번은 성의 경찰이 불법으로 파룬궁수련생을 수색하고 납치했다. 하우경은 주동적으로 한 구역을 맡았다. 그 다음 그는 직접 여러 파룬궁수련생의 친구를 찾아가 그들에게 납치에 대비할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 중 한 가지는 향을 잠시 울리지 말고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돌려 향 연기가 흩어지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경찰은 도처에 쏘다니다 향냄새만 맡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사람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하우경은 “이 무리들은 나쁜 사람은 붙잡지 않고 오히려 좋은 사람만 붙잡습니다. 이는 무슨 세도입니까?” 라고 말했다. 얼마 안 돼 하우경은 간부로 승급했다.

어느 하루 한 파룬궁수련생이 하우경에게 전화하여 모모 파룬궁수련생이 진상을 알리던 중 사악한 경찰에게 납치됐다고 했다. 하우경은 “내가 가서 말하겠으니 당신은 기다리다 사람을 데리고 가세요.”라고 말했다. 하우경이 차를 몰고 곧바로 모 파출소에 가 파출소 책임자한테 “형, 방조해 주세요.” 그 책임자는 두 말없이 사람을 불러 즉시 납치한 사람을 내 놓으라고 했다.

얼마 안 되어 하우경은 또 복을 받았다. 그는 결혼한 지 10 년이 된다. 동창들의 아이들은 이미 학교로 다니고 있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애가 없었다. 하우

경 부부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들 둘은 출산 능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파룬궁수련생을 도와준 이듬해에 아내는 그한테 귀여운 아들을 낳아줬다. 사업에서도 하우경은 연속 4 급이나 승급했다.

### 2. 악보

2009 년 음력 1 월 5 일, “최송철이 교통사고로 불에 타 죽었다” 는 소식이 신속히 지린성 동북 중조변경작은 도시인 투먼시에 전해졌다.

최송철, 남, 조선족, 당년 약 마흔이었다. 시공안국 안산구치소의 회계, 교도원, 사당(邪党) 지부서기, 부소장직을 맡았다. 2001 년 9 월, 최송철은 감금당한 두 명의 젊은 여성 파룬궁수련생이 대법 경문을 베끼는 것을 발견하고는 수감으로 이들을 달아매 놓았다. 60 여세인 한 여성 파룬궁수련생이 혹형을 정지하라고 항의하자 그는 이 파룬궁수련생을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아매고는 노기등등해서 “사흘 밤낮을 달아매 놓고 화장실도 보내지 않고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주지 않겠으니 너희 선생님이 구해주길 기다려라” 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술 마시려 시내에 내려갔다. 이렇게 18 시간이나 허공에 달아매 놓았다. 함께 감금된 재소자들(강탈, 마약, 매춘, 사기 범죄자들이 파룬궁수련생들의 감화로 모두 파룬궁을 배웠다.)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 몰래 달아맨 사람의 발 밑에 배개를 받쳐놓아 고통을 덜도록 했다. 이렇게 했다 해도 달아매인 사람의 고통은 칼로 베듯이 아팠다. 어떤 이는 소변이 흘러 바지가 젖었고 그 연세가 많은 분은 약 한 시간이나 혼미 상태에 빠졌다. 구치소 주재 검찰원의 인원이 구해달라는 소리를 듣고 와서야 달아맨 사람을 풀어 주었다.

얼마 안 되어 술을 가득 마신 최송철이 구치소로 돌아왔는데 이 모든 것을 보고는 노기충천해서 “아니 내 동의도 없이 내려놓았는가?”라고 말하고는 또 다시 3 사람을 1 시간 넘게 달아매 놓았다. 긴 시간 수감으로 달아매 놓아 피해자들의 손목은 한 달 후에야 겨우 상처가 회복됐다.

이번에 달아맨 사건을 알게 된 피해자가족이 최송철에게 질문했다. “당신이 집행하는 법은 어디 법입니까? 왜 그렇게 잔인합니까? 우리는 당신을 고소하겠습니다.” 처음에 최송철은 그래도 몇 마디 변명했지만 후에 가족들이 법리로 도리를 따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겁을 먹었다. 최송철은 관위를 보존하고 돈벌이 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상소하지 말라고 사정하면서 자기가 어리고 아는 것이 없어 한 일이니 양해해 달라고 애걸했다. 가족들은 그가 후회하고 고치려는 것을 보고서 용서해줬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그의 박해 수단은 음험하고 지독해졌다, 2006 년 최송철은 또 한명의 감금된 파룬궁수련생을 향해 “진상을 말하지 못한다. 듣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악한가를 알게 할 것이다.”라고 위협했다.

최송철은 2009 년에 악보를 받아 죽었다.

선악에는 결국 응보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파룬궁을 박해하는 사람에게 경고한다. 하늘의 그물이 매우 넓고 성글지만 빠뜨리지 않는다. 자신의 운명과 전도를 위해 가족과 후대의 안위를 위해 절대 최송철처럼 파룬궁을 박해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최송철이 받은 현세현보의 말로가 역시 당신들의 몸에서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

좋은 사람은 좋은 복이 있고 악한 자는 재앙을 피하지 못하며  
선악에 응보가 없다면 천지에 공정한 리치가 없도다 !